

인천관동갤러리 전시안내

일본 주택 어제와 오늘

~인천 개항장 옛일본 조계지 재생계획 및 현대 일본 건축가 주택 연구



전시기간 : 2015 년 9 월 11 일~10 월 31 일
(금토일 10:00~18:00 개관, 추석연휴 휴관)

행사안내 : 10 월 24 일(토) 16:00~
한양대 학생들의 연구발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주거에 대한 욕구.
우리에게 쾌적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도미이 마사노리
연구실 학생들의 작품 전시와 연구발표.

전시 내용

1. 인천 개항장 일대에 남아있는 옛 일식 목조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새로운 재생의 방안을 제안한다.

*인천 개항장 일대 일식 주택 분포와 활용 상황

*전통적인 도시형 집합주택 '마치야' 연구

*일식 주택 리노베이션

세대 통합 문화센터, 대중을 위한 예술창작 공간, 어린이 집

2.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주택을 살펴 보면서 매력적인 도시형 독립 주택을 소개한다.

*단계 겐조 (1913~2005) 나의 저택(自邸) *시노하라 가즈오 (1925~2006) House in YOKOHAMA

*사카모토 가즈나리 (1943~) House F *이토 도요 (1941~) WHITE U&SILVER HUT

*모즈나 키코 (1941~2001) 반주기(反住器) *소우 후지모토 (1971~) House N

*니시자와 류에이 (1966~) Moriyama House

인천관동갤러리 <http://www.gwandong.co.kr/> gwandong14@gmail.com

인천시 중구 신포로 31 번길 38 (구주소 : 관동 2 가 4-10)

전화 : 032-766-8660

매주 금토일 10:00~18:00 개관, 추석연휴 휴관

일본 주택 어제와 오늘 ~ 인천 옛일본 조계지 재생계획 및 현대 일본 건축가 주택 연구

전시개요 : 이번 전시는 [인천관동갤러리] 계획설계를 맡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도미이 마사노리 객원교수가 한양대에서 2015 년도 1 학기에 담당한 3 학년 [설계스튜디오]와 4 학년 [주거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작품과 연구 성과 발표이다.

[설계스튜디오]는 지난해에 이어 인천 개항장 일대 옛일본조계지의 재생계획을 과제로 삼았다. 학생들은 공동으로 이 지역의 역사고찰과 현황조사를 한 후, 각자 이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과 건물을 선택하여 재생을 위한 제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작품으로 제안했다.

일본에선 증세부터 [마치야]라는 형태의 도시형 목조집합주택이 형성되었는데, 인천개항장 일대에는 지금도 그런 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형성 당시에는 뒷마당을 공동으로 쓴 '이웃커뮤니티'가 존재했고 집 앞의 큰길과 뒷마당을 연결하는 '통로마당'이 있었는데, 해방 후 증축과 개축으로 인해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작년도 연구에서는 개별 건물(점)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았는데 비해 올해는 하나하나의 건물보다 길(선)과 공동마당(면)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다. 즉 재생에 대한 관심이 점에서 선과 면으로 이행한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주거론]은 한국에서 단조로운 아파트 환경에 익숙해 왔고 앞으로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건축학도에게 주택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수업이다. 세계 대표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각 작품을 분석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 현대 건축가의 대표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인 매력이나 설계 수법은 물론 건축가의 경력이나 그 시대 사회상황까지 고찰한 성과를 발표한다.

현대 민주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이 도시에서 어떤 삶으로 구현하는가, 사람의 있어서 주거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주장 제안하는 일본 건축가들의 '도시형 독립주택'을 시대별로 전시한다.

“건축가의 작업은 주택에서부터 시작하고 주택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일단을 이 전시에서 느껴졌으면 한다.

이 전시를 보러 오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현지답사에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의 협조를 받은 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린다.

젊은 학생들의 작업이 지역 활성화, 쾌적한 주택 공간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으면 더할 기쁨이 없을 것이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객원교수 도미이 마사노리